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홍성훈* · 김희수**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별, 자아개념, 대인관계 간의 그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는 첫째, 청소년의 성별, 자아개념과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 자아개념을 제외한 청소년의 성별, 자아개념과 대인관계는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였으며, 비행행동 변량의 약 10%를 설명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과 설명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자아개념이 부정적인 남학생은 그렇지 않은 남학생에 비해 더 빈번한 비행행동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여학생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자아개념, 대인관계와 비행행동의 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모형으로는 대인관계가 자아개념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를 중재한다는 매개모형을 설정하였고, 경합모형으로는 자아개념과 대인관계가 별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독립모형과, 독립과 매개과정을 결합한 통합모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매개모형이 다른 두 모형보다 높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매개모형의 구조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

주제어 : 청소년, 비행행동, 자아개념, 대인관계

* 건양대학교 사범보육계열

** 송호대학, 교신저자,

I. 서 론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행의 형태는 과거부터 나타나던 현상이었으나, 최근 들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금품을 갈취당하거나 집단으로 폭행을 당해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어 그 방법과 횡수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행동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바, 일선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들 뿐 아니라 교육학이나 심리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범죄가 집계된 1963년 이래 청소년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 안팎으로 별 변화가 없었으나 1992년 이후로는 양적인 증가를 보였었다. 강력, 폭력, 성범죄를 포함한 청소년 범죄는 2002년에 16.6% (123,921명)에 달했으며(문화관광부, 2003), 최근의 연구결과에서도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비행사례는 확산되고 있다(김선아, 2005).

학교에서의 청소년 비행행동은 일상화된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을 넘어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그 강도와 방법 면에서도 성인들 못지않은 잔혹성과 계획성, 지속성을 갖고 있어 반복적인 비행행동을 보인다(이명신, 2002; 2005; Bernstein, J. Y., & Watson, M. W., 1997; Roland, E., & Idsoe, T., 2001).

지금까지 수행된 청소년 비행행동의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김희수, 2005; 박종효, 2007; 유혜경, 1986). 첫째 유형은 실태조사 연구이다. 연구기관, 정부기관,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청소년 비행행동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2). 전국적 실태조사 연구는 비행행동 발생률이나 비행행동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얻는 데 유용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행행동의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가운데 표준화되지 않은 설문지를 사용하므로 발생률의 편차가 심하고 일관성 있고 신뢰로운 결과를 얻기는 그 한계가 있다.

둘째 유형은 청소년 비행행동에 관한 이해이다. 비행행동 관련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특성을 발견하는 연구 등이다.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비행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분노나 충동성, 반동형성이 높거나

부모나 교사와 애착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일탈 경험이 있는 교우들과 가깝게 지낸다는 것이다(구미향, 2005; 김명자, 2001; 김선아, 2005; 김희수, 2005; 박종효, 2003; 신혜섭, 2005; 최운선, 2005).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특정한 심리사회적 특성이 비행행동을 유발하는 것처럼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연구는 비행행동과 관련 있는 변인들을 탐색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어서 비행행동의 발생기제에 대한 이해를 확정시키지 못한다.

셋째 유형은 비행 청소년을 위한 정책연구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연구이다. 정책연구의 대표적인 예는 집단 따돌림이나 왕따, 그리고 가출에 관한 연구이다(김지혜, 2005; 성윤숙, 2005; 이해영·김영철, 1999).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이론적 및 학문적 관심보다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행행동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에 대한 경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박종효, 2007).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관한 이론적 및 학문적 연구를 세밀하게 검토하여 비행행동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효과성 평가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유형은 청소년의 비행행동의 연구를 위한 표준검사도구를 개발 및 적용하는데 관점을 갖는 연구이다(김선남, 1994; 노성호, 1986; 이해리·조한익, 2005). 우리나라의 표준검사도구 개발은 주로 외국의 표준검사도구를 도입하여 번안·수정하여 사용하는 게 일반화 되어 있다. 또한 인구생태학적 관점과 지역 등의 관련 매개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검사도구를 개발·사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표준검사도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과 청소년 문화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김희수, 2005).

이상에서 언급한 네 유형의 연구가 모두 필요하지만, 특히 둘째 유형의 이론적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처방하는 데 필수불가결하다. 이를테면, 청소년 비행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행행동이 무엇인지, 왜 발생하는지,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과 어떻게 다른지, 비행행동을 촉발하거나 억제하는 개인적·사회적·문화적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과 분석이 요구된다. 즉, 개인변인과 대인관계가 어떤 과정과 관계를 통해서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비행행동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 특성과 대인 관계를 고려할 뿐 아니라 이들 간의 관련성이나 관계를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의 성별, 자아개념과 대인관계가 비행행동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개인 특성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비행의 정의와 유형

청소년비행은 시대와 사회,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로 도리나 도덕 또는 법규에 어긋난 옳지 못한 청소년의 행동을 일컫는다. 흔히, 청소년비행은 법정에서 소송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 규범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모든 청소년의 행위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과오로 실수를 범한행동 등 비교적 가벼운 잘못된 행동도 포함하는 범죄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한상철·조아미·박성희, 1999). 청소년비행은 우발적이거나 의도적이건 혹은 지속적으로 나타나거나 일회적인 행위이건 간에 일정한 사회규범을 어기는 행위는 모두 다 포함된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은 원래 법적인 용어로서 청소년들이 저지른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성인의 범죄행위와 분리 취급하기 위하여 설정한 개념이다(김제한·공석영·김충기, 1981).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이란 형법 법령 특별법에 저촉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또는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장래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를 일컫는다. 이를테면, 청소년비행은 각종 법령을 위반하는 범법적인 반사회적 행위를 비롯하여 현행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사회·도덕적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비도덕인 행위, 미성년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 사회와 집단생활에 부적응 등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비행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불량행위로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적 행위로 다른 사람과 사회에 피해를 주는 ‘불량행위’로서의 음주·흡연·약물복용·싸움·흥기소지·불량집단조직·구타·위협·가출·자살·성도덕 문란행위·미성년자 금지구역 출입 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법률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할 위법행위인 ‘범죄’로 폭행·상해·공갈·협박·감금·유인 등의 폭력범죄, 강도·강간·방화·살인 등의 강력범죄, 횡령·배임·장물·사기 등의 재산범죄, 도로교통 위반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교통사범으로 나누어진다(김제한·공석영·김충기, 198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비행의 장소를 학교로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비행행동의 유형(김선남, 1994; Grotper, J. K., & Crick, N. R., 1995)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비행행동의 유형에는 지위비행, 학업비행, 반항적 비행, 폭력비행, 성비행 등 다섯 가지로 대별된다. ‘지위비행’은 음주·가출·흡연·무단결석·늦은 귀가 등으로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행위를 말하며, ‘학업비행’은 학업이나 시험 간에 이루어지는 대만·속임·무기력·부정행위 등을 의미한다. ‘반항적 비행’은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성질로 행동을 이끌어가는 일체의 행위이며, ‘폭력비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물리적 힘이나 강압에 의하여 상대방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안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언어폭력이나 왕따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성비행’은 이성에 대한 강간, 강제 추행, 심한 신체노출 등의 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청소년비행과 자아개념의 관계

청소년이 자신이나 중요 타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청소년비행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김선아, 2005; David, C. F., & Kistner, J. A., 2000; Eden, J. F., Cavel, T. A., & Hughes, J. N., 1999).

자아개념은 일반적으로 자아정체감(self-identity)이라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자아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지는 감정과 인지의 총체라고 볼 수 있다. 즉,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성공과 실패의 축적은 학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이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자각과 자신에 대한 자기평가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권건일, 2000). 부정적인 자아개념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보게 하고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게 한다(김희수, 2005; 박아청, 2002; Natvig, G. K., Albrektsen, G., & Qvarnstrom, U., 2001).

비행행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연구한 여러 연구결과(김준호·김선애, 2000; 이미리, 2005; 이성식·전신현, 2004; 홍영수, 2004;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Ireland, J. L., & Power, C. L., 2004; Hirschi, T., 1969)에서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정신건강, 학교적응, 학업성취, 진로 의식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비행이나 일탈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김준호와 김선애(2000)는 부모나 교사와의 애착 정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자아개념이 낮아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쉽게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는 개입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 같이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비행행동과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아개념의 영역이나 차원에 따라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나 정도가 다른 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소년비행과 대인관계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중요 타자는 부모, 교사, 또래일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들 중요 타자를 비행행동의 강력한 예언변수로 본다(Spielberger, C. D., 1972). 부모나 교사로부터 따뜻한 애정과 애착을 갖지 못하거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일수록 소외감을 갖게 되고 이는 반항적 태도, 일탈, 비행행동을 일삼게 된다(Cohn, D. A., Patteson, D. J., & Christopoulos, C., 1991). 즉, 청소년비행과 대인관계의 애착 정도는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이다(홍영수, 2004).

무엇보다도 학교에서의 교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교사와 청소년 간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며 친절할 경우 학교적응을 돕고 비행이나 일탈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Birch, S. H., & Ladd, G. W., 1997), 반면에 교사와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청소년은 학교부적응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비행행동에 더욱 자주 참여한다(이상균, 2005; 박영신·김의철, 2001). 특히, 자아개념이 낮고 공격적인 청소년일

수록 교사에 의해 더 부정적이고 반향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사와 청소년의 관계가 비행행동의 위험(혹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Park, J., 2006).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부모와의 관계가 적대적이고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에 더 많이 노출되어 비행문제를 유발시키는 매개요인이 된다(김선아, 2005; 신혜섭, 2005; Cohn, D. A., Patteson, D. J., & Christopoulos, C., 1991; Osofsky, C., 1995).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인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학교와 사회에서의 일탈과 비행을 촉발하게 하는데, 부모의 비밀관적 엄격한 훈육, 감정적인 태도, 애정이나 보살핌의 부족, 자녀에 대한 부정적 언어, 일방적인 지시 등이 그 예이다(Baker, R. W., & Siryk, B., 1984).

실제로 김경희(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공격적인 태도를 연상하게 하는 대상이나 목소리, 옷차림 등을 접하게 되면, 공포심을 느낀다고 말해(백옥현·손현규, 2004)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가진 청소년들은 자아개념을 상실하거나, 학습 관련 집중력이 떨어지며, 대인관계 기피현상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비행 또는 일탈을 하기도 한다(Birch, S. H., & Ladd, G. W., 1997).

또한 비행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 배척받거나 피해를 경험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또래 간의 갈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분노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이를 가해하는 폭력이나 스스로 비행의 늪으로 빠진다(김준호·김선애, 2000; 김희수, 2005; 이은희·공수자·이정숙, 2004; McGee, C., 2001; Sroufe, L. A., 1983).

이처럼 청소년비행과 대인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아개념과 연계하여 그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아개념과 대인관계는 어떤 과정으로 관련 변수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관악구, 강서구, 구로구)의 6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 1,120명(학교별 6학급)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 중 수집된 자료가 불완전한 경우를 제외한 1,108명(남학생 523, 여학생 585)을 대상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 검사도구

1) 비행행동검사

비행행동검사는 유혜경(1986)의 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비행의 유형을 참고하여 김선남(1994)이 제작한 비행행동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크게 다섯 가지로 대별하였는데 지위비행, 학업비행, 반항적 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이다. ‘지위비행’은 5문항으로 음주·가출·흡연·무단결석·늦은 귀가 등으로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된 행위를 말하며, ‘학업비행’은 3문항으로 학업이나 시험 간에 이루어지는 태만·속임·무기력·부정행위 등을 의미한다. ‘반항적 비행’은 3문항으로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는 성질로 행동을 이끌어가는 일체의 행위이며, ‘폭력비행’은 5문항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물리적 힘이나 강압에 의하여 상대방을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안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는 언어 폭력이나 왕따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 ‘성비행’은 3문항으로 이성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심한 신체노출 등의 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예시문항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며칠 이상 안 들어오기’ 또는 ‘교사나 윗 어른에게 대들기’ 등이다.

이들 각 문항은 ‘전혀 없다’ 1점에서부터 ‘매우 많다’의 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Likert 방식의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행동이 높은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가정폭력 지각수준 척도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Cronbach α)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비행행동의 하위척도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 항 번 호	문항수	Cronbach α
지위비행	1, 2, 3, 4, 5	5	.79
학업비행	6, 7, 8	3	.80
반항비행	9, 10, 11	3	.82
폭력비행	12, 13, 14, 15, 16	5	.89
성 비행	17, 18, 19	3	.77
비행행동(전체)		19	.85

2) 자아개념검사

자아개념검사는 사회, 가족, 신체, 학업으로 대별한 현주 외(2005)가 제작한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사회 자아개념’은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 환경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평가적 태도와 신념의 정도이다. 사회 자아개념의 예시문항은 ‘친구들은 나와 함께 놀기를 좋아한다.’ 또는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 등이다. 신뢰도(Cronbach α)는 .82이었다.

‘가족 자아개념’은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이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과 가정에 대해 형성한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와 신념의 정도이다. 가족 자아개념의 예시문항은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는 ‘나는 행복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 등이다. 신뢰도(Cronbach α)는 .87이었다.

‘신체 자아개념’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과 제반 경험을 통해 형성한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와 신념의 정도이다. 예시문항은 ‘나의 용모는 매력적이다.’ 또는 ‘나는 나의 얼굴 생김새에 만족한다.’ 등이다.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79이었다.

‘학업 자아개념’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이 자신의 학업능력, 학급활동, 수업, 학업성취에 대해서 중요한 타자와의 상호작용과 제반 경험을 통해 형성한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와 신념의 정도이다. 예시문항은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

를 한다.’ 또는 ‘나는 대학과정까지 마칠 능력이 있다.’ 등이다.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83이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응답할 수 있는 Likert방식의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이 높은 정도를 나타낸다.

3) 대인관계검사

대인관계검사는 류한구 외(1995)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부모와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와의 관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대하며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는 등 교사가 청소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지를 나타낸다. 신뢰도(Cronbach α)는 .89이었다.

‘또래관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또래끼리 사이가 좋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래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 또래관계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지를 나타낸다.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80이었다.

‘부모와의 관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부모와의 관계는 의견을 존중해 주거나 도와주시는 등 부모님의 긍정적인 행동과 심하게 야단을 맞거나 규칙을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등 부모님의 부정적인 행동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의 방향과 일관되도록 부모님의 부정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을 역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89이었다.

각 문항의 응답양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방식의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의 조사는 2007년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1주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교장선생님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여 담임교사의 도

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11.0 v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t-test를 이용하여 비행행동과 독립변인의 성차를 확인하였고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과 같은 통계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독립변인이 비행행동을 설명하는 정도나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Stepwise)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아개념과 대인관계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경로)을 모형화 하고 이를 구조방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으로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비행과 설명변인의 성차와 변인 간의 상관

청소년 비행행동과 자아개념, 대인관계의 성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성별 비행행동, 자아개념, 대인관계의 평균차이 검증

구 분	남 학 생 평균(표준편차)	여 학 생 평균(표준편차)	t
사회 자아개념	3.82(.66)	3.69(.61)	-5.62***
가족 자아개념	3.79(.70)	3.94(.77)	2.12**
신체 자아개념	2.96(.82)	2.75(.79)	11.08**
학업 자아개념	3.47(.72)	3.31(.74)	2.25*
교사와의 관계	3.10(.78)	2.98(.75)	6.97***
도래관계	3.66(.73)	3.72(.70)	-4.86***
부모와의 관계	3.09(.59)	3.18(.62)	-7.49***
비행행동	1.71(.67)	1.43(.58)	17.01***

* p<.05, ** p<.01, *** p<.001

〈표 2〉에 나타나있듯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가족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반면에 사회, 신체, 학업 자아개념은 부정적이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교사와의 관계가 부정적인 반면에 또래관계와 부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빈번히 비행행동을 경험하였다.

〈표 3〉은 비행행동과 자아개념, 대인관계에 대하여 피어슨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에 나타나있듯이, 가족, 신체, 학업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p < .001$), 교사나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비행행동 간에는 부적 관련이 있었다. 사회 자아개념이나 교우관계는 비행행동과 유의한 상관은 보이지 않았다. 가족 자아개념과 부모와의 관계($r = .61, p < .001$)를 제외한 다른 변인 간의 상관은 중간수준 이하였다.

〈표 3〉 변인 간의 상관분석표

구 분	1	2	3	4	5	6	7
1. 사회 자아개념	-						
2. 가족 자아개념	.38**	-					
3. 신체 자아개념	.42***	.34***	-				
4. 학업 자아개념	.44**	.41***	.38***	-			
5. 교사와의 관계	.10***	.27**	.14***	.19***	-		
6. 또래관계	.47**	.29***	.25**	.30**	.35**	-	
7. 부모와의 관계	.26***	.61***	.21***	.29**	.23**	.31***	-
8. 비행행동	-.00	-.16***	-.06***	-.17***	-.11**	-.04	-.16***

* $p < .05$, ** $p < .01$, *** $p < .001$

2.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성별,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청소년의 성별,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가 비행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회귀모형에서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종속변수로, 청소년의 성별과 자아개념, 대인관계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으며 단계적(stepwise) 방식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별과 자아개념, 청소년

의 성별과 대인관계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상호작용 변수를 다음 단계에 투입하였다. 청소년의 성별은 여학생을 1로 남학생을 0으로 하는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표 4〉에 나타나있듯이, 청소년의 성별과 자아개념, 대인관계는 청소년 비행행동의 9.6% 정도를 설명하였다. 남자의 경우 학업, 가족 자아개념이 부정적일수록, 교사나 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사회 자아개념과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비행행동은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행행동을 빈번히 유발시키는 청소년은 남학생이며 자아개념이나 대인관계가 부정적이지만, 또래관계와 사회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조정(moderation)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별과 자아개념, 청소년의 성별과 대인관계 간의 상호작용 항목을 만들어 투입하였다. 그 결과, 성과 사회 자아개념 간에서만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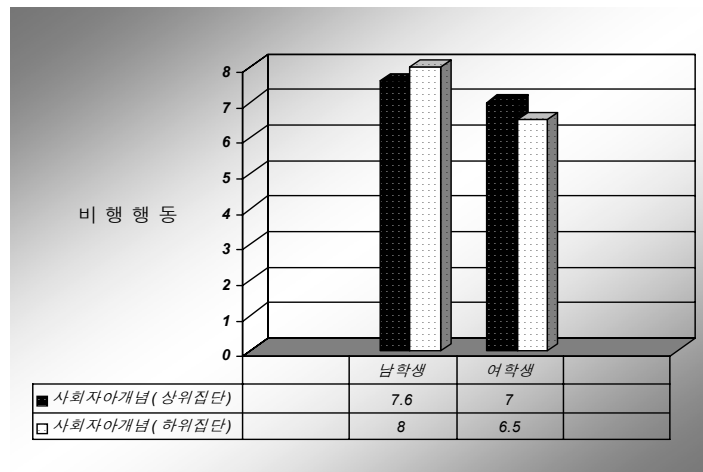
〈표 4〉 청소년 비행행동의 다중회귀분석 최종단계 결과

영역	변인	B	β	t	B	β	t
학생성별	(여자=1)	-1.62	-.26	-16.83***	-2.87	-.53	-5.42***
자아개념	학업	-.11	-.17	-9.65***	-.11	-.17	-9.60***
	가족	-.04	-.06	-3.01**	-.04	-.06	-2.99**
	사회	.07	.10	3.87**	.04	.05	1.66*
대인관계	교사와의 관계	-.08	-.10	-5.06***	-.08	-.10	-4.93**
	또래관계	.09	.09	3.94***	.09	.09	3.90***
	부모와의 관계	-.02	-.06	-2.71**	-.02	-.06	-2.79***
상호작용	성×사회 자아개념				.05	.24	2.53**
		F(7,6042)=65.92 $R^2 = .096$			F(8,5287)=58.61 $R^2 = .098$		

* p<.05, ** p<.01, *** p<.001

상호작용 효과의 이해를 위하여 남녀집단으로 구분하여 사회 자아개념이 평균으로부터 1 표준편차 높은 집단과 1 표준편차 낮은 집단의 평균 비행행동 점수를 도식화하였다. [그림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여학생보다 비행행동을 더 빈번하게 보였다. 이와는 달리, 남학생의 경우 사회 자아개념의 차이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사회 자아개념이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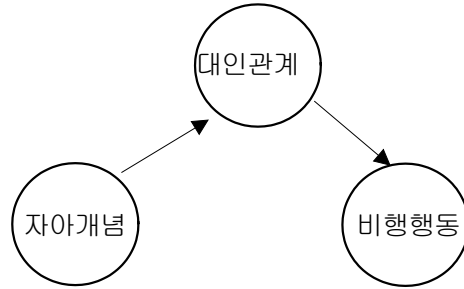
인 남학생이 비행행동의 빈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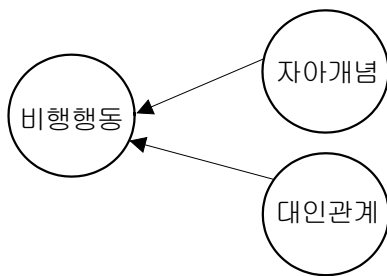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성별과 사회자아개념의 상호작용 효과

3. 자아개념과 대인관계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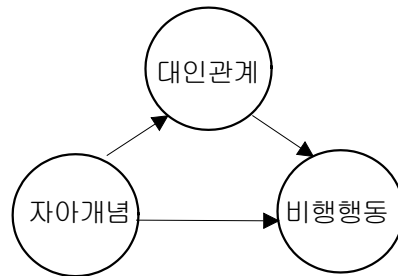
자아개념과 대인관계가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하여 구조 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그림 2]는 ‘매개모형’으로 자아개념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를 대인관계가 매개하는 변인으로 하는 모형이다. [그림 3]은 ‘독립모형’은 자아개념과 대인관계가 독립적으로 비행행동을 설명한다고 가정한 모형이고, [그림 4]는 ‘통합모형’으로 자아개념이 직접적으로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대인관계의 매개를 통한 간접적으로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통합한 모형이다.



[그림 2] 매개모형



[그림 3] 독립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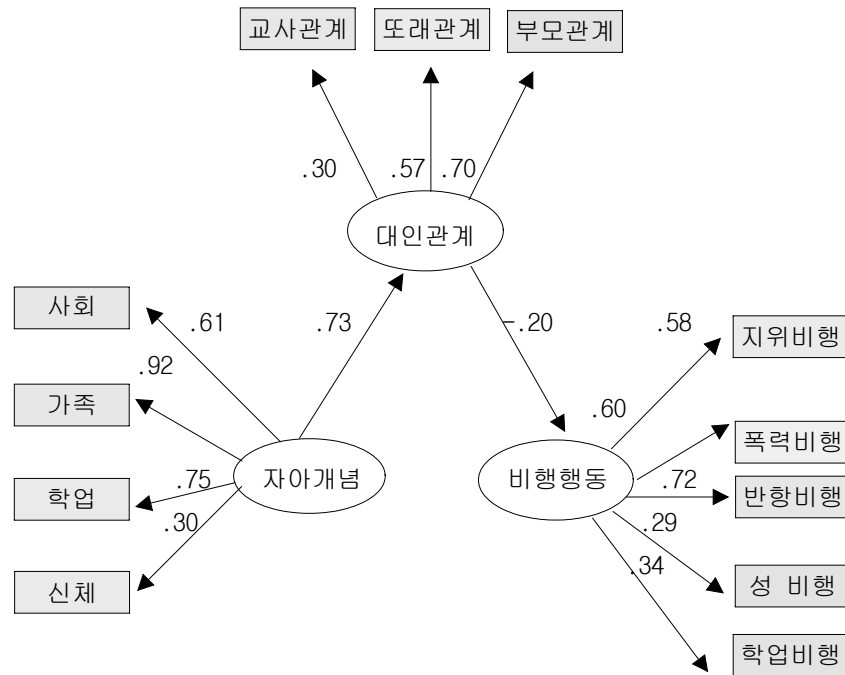
[그림 4] 통합모형

위에 제시한 세 모형에 관한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매개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나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한편, 통합모형은 자아개념과 비행행동 간에 경로를 추가해도 유의하게 값이 줄어들지 않았기에 본 연구의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매개모형을 선정하였다.

<표 5> 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χ^2	df	CFI	AGFI	RMSEA
매개모형	1512.60	43	0.96	0.96	0.074
독립모형	3911.40	43	0.80	0.85	0.120
통합모형	1512.85	40	0.96	0.96	0.075

따라서 최선의 모형으로 선정된 매개모형의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살펴보면 (그림 5) 와 같다.



[그림 5]비행행동의 매개모형: 자아개념과 대인관계

사회 자아개념, 가족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학문적 자아개념은 잠재변인인 자아개념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beta_s \geq .30$, $t_s \geq 25.20$). 또한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도 대인관계라는 잠재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beta_s \geq .30$, $t_s \geq 19.87$). 또한 청소년 비행행동을 측정하는 하위변인들도 비행행동 잠재변인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 보였다($\beta_s \geq .29$, $t_s \geq 15.43$).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beta = .73$, $t = 20.09$), 대인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비행행동은 부적 영향을 받아 감소하였다($\beta = -.20$, $t = -7.64$). 최선의 모형에서 자아개념이 대인관계를 통해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eta = -.11$, $t = -7.02$)는 유의하였다.

그리고 구조모형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집단을 분리하여 구정방정식모형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별, 자아개념, 대인관계 간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비행행동 청소년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상담적 개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청소년의 비행행동 관련 여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 특성뿐만 아니라 또래관계, 부모관계, 그리고 교사관계는 비행행동을 설명하는 중요 변수이다(김선아, 2005; 신혜섭, 2005; Cohn, D. A., Patteson, D. J., & Christopoulos, C., 1991; Osofsky, C., 1995). 선행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거나 대인관계가 부정적일수록 비행행동은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사회 자아개념이나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비행행동이 증가한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 연구주제와 유사한 박종호(2007)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관한 연구와도 비슷하며, 사회 자아개념이나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유대관계가 강하고 연대 심리가 발동해 학교폭력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박종호의 연구결과가 그 의미를 더해준다.

이와 같이 통계적 차원이나 이론적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우선 상관분석 결과에서 청소년 비행행동은 사회 자아개념이나 또래관계와 상관이 없거나 약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 보였다. 반면, 다중회귀분석에서 다른 차원의 자아개념과 대인관계를 동시에 투입할 경우 사회 자아개념과 또래관계는 청소년 비행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 이 두 가지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 자아개념이나 또래관계가 다른 차원의 자아개념이나 대인관계와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통제되고 난 후 사회 자아개념이나 또래관계는 청소년 비행행동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 결국 구조방정식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 자아개념의 상당 부분(변량)은 자아개념이라는 상위개념으로 묶여서 설명되지만 묶이지 않는 일부 변량이 자아개념 전체와는 다른 방향으로

비행행동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또래관계도 동일한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적 자아개념이나 또래관계와 비행행동 사이의 정적 관련성은 비행행동 유형의 발달경향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나이가 어린 아동일수록 반항이나 폭력 등이 직접적이거나 물리적인 형태를 띠는 반면 나이가 많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사이버 폭력, 군중심리, 이탈 및 간접 반항, 집단 따돌림, 집단 성폭행 등 간접적이고 대인관계를 이용한 비행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하다(김준호·김선애, 2000; 김희수, 2005; 이은희·공수자·이정숙, 2004; McGee, C., 2001; Sroufe, L. A., 1983).

자아개념이나 대인관계가 청소년의 비행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과 비행행동 간의 관계를 ‘대인관계’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경험모형으로 자아개념과 대인관계가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독립모형과, 독립적인 영향과 매개과정을 통합한 통합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세 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매개모형이 통계적으로 나은 적합도 지수를 보였으며 자아개념이 대인관계를 통해서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었다. 특히, 자아개념과 대인관계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남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다중회귀분석과 구조방식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회적 자아개념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설명하는 정도에서 남녀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사회적 자아개념을 포함한 전체 자아개념과 대인관계가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과정(경로)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는 청소년 비행행동에 관한 이론적 관심을 넘어서 청소년 비행행동 예방 및 사후 조치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이나 비행행동 청소년의 선도 및 교육 상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외에도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자아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자아개념이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또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모와 좋은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교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도록, 비행학생의 대인관계 경험을 교육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대인관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행동의 유혹으로부터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별,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간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설명하는 데 어떤 개인 및 사회적 변인이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던 선행연구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및 사회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였으며, 나아가 이들 사이의 관계를 가설적으로 모형화 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지역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 6개교에서 남녀 학생 1,108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엔 그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로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이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연령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령과 연령의 추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한 비행행동 측정도구는 지위비행, 학업비행, 반항적 비행, 폭력비행, 성비행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없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성비행과 학업비행의 경우 분명히 남녀의 검사 관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측정도구가 설게 제작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비행행동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및 상담적 개입이 비행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요구된다. 현재 국내의 청소년비행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비행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은 빈약한 편이다. 그러므로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화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임상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 고 문 헌

- 고성혜(1996). 청소년비행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청소년육성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6. 한국청소년개발원.
- 구미향(2005). 정서·행동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주관적 인식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67~92.
- 권건일(2000). 교육학개론. 서울: 양서원.
- 김경희(1995).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자(2001).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10, pp.241~253.
- 김선남(1994). 청소년 비행 관련 변인간의 인과적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아(2005).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애착이 폭력가해와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해-피해중첩집단과 일반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5~36.
- 김제한·공석영·김충기(1981).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세광공사.
- 김준호·김선애(2000).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1권 제1호, pp.25~50.
- 김지혜(2005). 가출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207~234.
- 김희수(2005).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이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1호, pp.109~132.
- 류한구·김양분·현주·김일혁·강상진·김현철·박성호(2005).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1): 예비조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문화관광부(2003). 2003년 청소년백서. 서울: 문화관광부.
- 박영신·김의철(2001). 학교폭력과 인간관계 및 청소년의 심리 행동특성: 폭력가해, 폭력피해, 폭력무경험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 pp.63~89.
- 박종효(2007).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매개효과. 교육학연구, 제45권 제1호, pp.1~24.
- 박종효(2003). 공격적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문제행동. 교육학연구, 41, pp.423~439.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성윤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295~343.

- 신혜섭(2005). 중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해경험, 피해경험, 가해·피해 중복경험에 대한 분석. *청소년학연구*, 12, pp.123~149.
- 유혜경(1986). 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명신(2002). 괴롭힘 가해자의 환경적 요인, 괴롭힘 행동유형, 가해자의 심리, 행동적 결과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1, pp.29~61.
- 이미리(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제2호, pp.263~293.
- 이상균(2005). 청소년의 또래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생태 체계적 영향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19, pp.141~170.
- 이은희·공수자·이정숙(2004).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 pp.123~145.
- 이해리·조한익(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제16권 2호, 161~206.
- 이혜영·김영철(1999). 학생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대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운선(2005). 학교폭력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 pp.95~111.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2).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2003). 2003년도 상반기 인터넷을 활용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도 자료.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 현주·김양분·박현정·류한구(2005). KEDI 종합검사 도구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Armsden, G. C., & Gree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pp.427~454.
- Baker, R. W., and Siryk, B.(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Vol. 31, pp.179~189.
- Bernstein, J. Y., & Watson, M. W.(1997). Children who are targets of bullying: A victim patter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 12 No. 4, pp.483~498.

- Birch, S. H., and Ladd, G. W.(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35*, pp.61~79.
- Cohn, D. A., Patteson, D. J., and Christopoulos, C.(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 8*, pp.313~346.
- David, C. F., & Kistner, J. A.(2000). Do positive self-perceptions have a 'dark side' Examination of the link between perceptual bias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 pp.327~337.
- Grotper, J. K., & Crick, N. R.(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pp.2328~2338.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Ireland, J. L., & Power, C. L.(2004). Attachment, emotional loneliness, and bullying behavior: A study of adult and young offenders. *Aggression Behavior, Vol. 30*, pp.298~312.
- McGee, C.(2001). *Child experiences of domestic violence*. London and Philadelphia: Jessica Kingsley Publisher.
- Natvig, G. K., Albrektsen, G., & Qvarnstrom, U.(2001). School-related stress experiences as a risk factor for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0 No. 5*, pp.561~575.
- Osofsky, C.(1995). The effects of exposure to violence on young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s, Vol. 50 No. 9*, pp.782~788.
- Park, J.(2006). Aggressor/Victim subtypes and teacher factors in first grade as risk factors for later mental health symptoms and school functioning. *Asia Pacific Educational Review, 7*, pp.108~119.
- Roland, E., & Idsoe, T.(2001). Aggression and bullying. *Aggressive Behavior, Vol. 27*, pp.446~462.
- Spielberger, C. D.(1972). Anxiety: Current Trends, *Theory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pp.136~149.
- Sroufe, L. A.(1983). Infant caregiver attachments and patterns of adaption in preschool: The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Vol. 16*, pp.41~81.

ABSTRACT

The Study on Adolescents' Misdemeanor Behavior : Mediation Effect of Interpersonal Relations

Hong, Sung-Hoon* · Kim, Hee-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understand adolescents' misdemeanor behavior so as to explore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gender,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ich adolescents' misdemeanor behavior can be explained by student's gender, self-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 result showed that student's gender,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to adolescents' misdemeanor behavior variance being explained. Second, since interaction effect of adolescents' gender and one of other predictors was examined, an interaction term between adolescents' gender and social self-concept was significant. Third, structural equal modeling was carried out to explore the relationship of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olescents' behavior. While a mediational model as hypothetical one was created, integrative and independent models served as alternatives ones. The mediation model posits that interpersonal relations mediate the linkage between self-concept and misdemeanor behavior. The independent model hypothesizes that self-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s impact misdemeanor behavior independently. The integrative model combined two models, independent and mediation ones. The LISREL output showed that the mediational model

* Konyang University

** Songho College

was better than the other alternative models. The model fits didn't differ in male and female.

Key Words : adolescent, misdemeanor behavior, self-concept, interpersonal relations

투고일 : 8월 29일, 심사일 : 10월 23일, 심사완료일 : 11월 14일